

보도

“울며 겨자 먹는다”… 가격 올라도 학식 불만 여전

국제캠 학식 만족도 설문조사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 학생식당(학식) 가격이 인상된 후 이에 대한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 만족도 조사를 위해 우리 신문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국제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332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식에 만족한 응답자는 총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 답한 인원은 총 233명으로 학식을 이용하는 응답자 281명 중 82.9%가 학식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식에 만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맛’이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233명 중 93명이 ‘맛’을 불만의 이유로 꼽았다. 한 응답자는 주관식 응답에서 “지리적인 문제로 시간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먹고 있다”라고 답했다. 학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1명 중 21명 또한 그 이유로 ‘맛’을 들었다.

지난 3월 국제캠 학생회관, 생활관, 공과대학 모든 학생식당(학식) 가격이 일제히 인상된 바 있다. 학식을 운영하고 있는 한화 푸디스트는 최저임금 상승, 원가부담으로 인한 식질 유지 어려움, 급식 품질에 대한 요구 상향평준화를 이유로 학식 가격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회관, 공과대학 식당에서 2,800원이었던 한식 메뉴는 3,500원으로, 3,200원이었던 양식 메뉴는 4,000원으로 올랐다. 5,000원에 먹을 수 있었던 즉석 떡볶이는 7,0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지난 4월 즉석 떡볶이와 조식 등 일부메뉴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인하됐다.

급식업체측이 학식 단가 인상 이유로 급식 품질 상향평준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식 이용자 281명 중 255명, 90.7%가 인상된 학식에 불만족을 표했다. 인상된 학식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학생들이 학식 가격 인상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맛’(104명)이었다. 73명이 ‘가격’을 불만의 이유로 선택해 그 뒤를 이었다. 학식 가격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음식의 맛과 질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역시 126명의 응답자가 ‘맛’이라 답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식에 품은 불만은 ‘맛’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주

01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학생식당에 만족하십니까?



03 학생식당이 가장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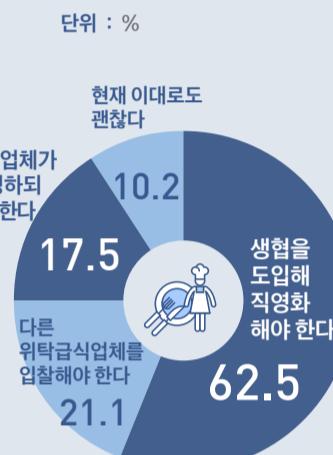
설문 대상: 국제캠 학부 재학생
설문 방식: 이메일 설문조사설문 기간: 6.1. ~ 6.8.
응답자 수: 332명

02

이전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 후 학생식당에 만족하십니까?



04 학생식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5 응답자 모두가 말하는 현 학생식당의 문제점

맛없다 가격
서울캠 그대로 영양소
불만족 퀄리티
생협 가성비
메뉴 비싸다 맛
개선 적다

“

생협 도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양질의 학식 유지에
수요자인 학생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

관식 문항의 답변을 살펴보면 “가격 대비 음식의 맛과 질이 별로다”라는 대답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소위 음식의 ‘가성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식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크지 않은 점 역시 불만의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학생회관 학식 4,000원 양식메뉴는 짬뽕재덮밥, 달걀파국, 모듬탕수육, 짜사이채무침, 배추김치를 제공했다. 이는 양식 메뉴 가격이 800원 인상되기 전인 지난 12월 22일 짬뽕재덮밥과 짜장소스, 유부미소국, 탕수육, 단무지무침과 큰 변화가 없다.

학생들은 ‘생활협동조합(생협) 도입 후 학식 직영화(207명, 62.5%)’를 학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꼽았다. 생협이 도입되면 ‘합리적인 가격’에 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생협 도입에 찬성한다

는 강다현(한국어학 2017) 씨는 “생협 도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라며 “양질의 학식 유지에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생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지난 2011년부터 생협이 학식을 직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캠 생협 관계자는 “이미 서울캠에 생협이 있기 때문에 국제캠에 지점만 내면된다”라고 답한 만큼 생협 도입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은 아니다. 다만 그간 국제캠 내 업체들과 맺고 있던 계약과 임대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생협은 비영리 단체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캠 학내에 있는 외부 업체들과의 계약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인상된

학식 가격, 국제캠 학생 여론은 ‘싸늘’/대학주보 제1631호, 2018.03.12)

한편 현재 한화 푸디스트가 운영 중인 제2기숙사 식당은 오는 6월 말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목전에 두고 생협 도입 계획은 없으며, 오는 30일까지 외부업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 생활관 유중근 계장은 “학생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품질과 메뉴의 다양성을 고려해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학생식당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대학을 답사하고 벤치마킹 하려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과대학과 학생회관 학식은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캠 총학은 “학생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

DGIST

2019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E8

① 봄학기 전형 원서접수

6.28(목) ~ 7.12(목)

④ 전공별 모집과정

전공	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전공	석사과정,
로봇공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에너지공학전공	박사과정
뇌·인지과학전공	
뉴바이올로지전공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② 서울 입학설명회

6.29(금)

엘타워 B1층 루비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외국인 학생 13:00~15:00
• 국내 학생 16:00~18:00
• 외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별 간담회 등
• 외DGIST 입학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가상캠퍼스투어)
www.dgist.ac.kr/virtualtour